민주 광주시장 후보 강운태 선출

배심원제, 결국 민심 못 뒤집었다

배심원 득표 3위 불구 여론조사 압도적 지지

역대 경선 최소표差…배심원 3명이 승부 갈라

강운태 의원이 '박빙의 승부' 끝에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지난 12월부터 본격화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5개월여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개혁공천을 내세우며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광주시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 당원전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배심원 3명 VS 당원 150명**=강 의원은 이날 종합득표 결과 37.80%를 얻어 37.35%를 획득한 이용섭 의원을 0.45% 포인트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정동채 후보는 24.85%를 얻는데 그쳤다. 강 의원과 이 의원의 표 차이는 역대 경선 가운데 최소표차로 알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298명이 참여한 시민배심원단 투표에서 86표(28.9%)를 얻는데 그쳤으나 당원 전수 여론조사 결과 46.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되는 영광을 거머쥐었다.

반면 이 의원은 시민배심원단 투표에서 41.6%라는 높은 지지를 얻었음에도 당원 전수 여론조사에서 33.1%에 그쳐 당원 표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경선 결과 중 시민배심원단의 투표 결과는 총 득표율의 50%를 차지한다. 이날 배심원이 298명 투표한 것을 감안하면 배심원 1명의 표가 총 득표율의 0.17% 가량 된다. 따라서 배심원 3명의 표심이 이날 승부를 가른 셈이다. 강 의원을 선택한 배심원 중 2명만 이용섭 의원을 지지했더라도 승부는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총 득표율의 50%를 차지하는 당원 전수여론조사의 경우 광주지역 전체 당원 17만3천여명 중 유효 표본이 1만4천545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원 50여 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배심원 1명 정도의 득표율인 0.17% 가량이 된다. 따라서 당원 150여 명의 표심이 최종 득표율에서 후보 선출의 희비를 가른 셈이 됐다. 결국 배심원 3명 또는 당원 150명의 선택이 이번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의 승부를 가른 것이다.

◇**극적 승부연출**=이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강 의원은 시민배심원제의 벽을 넘어 광주시장 공천을 손에 쥐었다.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386'의원들이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운태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했다는 설이 날 지역정가에서는 이미 파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경선대회에 참석한 배심원 구성이 강 의원에게 사실상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에 참석한 시민배심원단은 애초 배심원단으로 선정된 384명 중 77.3%인 297명이었다. 이 중 중앙당이 선정한 외지 배심원단은 전체 192명 중 85.4%인 164명, 광주 현지 배심원단은 전체 192명 중 69.3%인 133명이 각각 참석해 외지 배심원단의 참석률이 현지 배심원단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개표 결과 배심원 득표율에서 이용섭 의원이 41.6%인 124표를 얻고, 강 의원이 86표(28.9%)를 얻으면서 사실상 이 의원의 승리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전 당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시민배심원 투표와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두 의원 간 희비를 엇갈리게 했다. 여론조사 결과 강 의원이 이 의원을 무려 13.6% 포인트를 차이로 따돌리면서 승부를 다시 되돌렸다.

경선 전 각종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강 후보가 30~35%로 줄곧 1위를 달렸고, 정동채 후보와 이용섭 후보가 20~25%로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실제 이날 전 당원 여론조사 결과도 '민심=당심(당원)'을 확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결과 〈단위:%〉

	당원 여론조사	배심원 투표	합계
강운태	46.7	28.9(86표)	37.80
이용섭	33.1	41.6(124표)	37.35
정동채	20.2	29.5(88표)	24.85

지난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길게 서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당 강운태 후보가 지난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되자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 지방선거 새바람 일으켜 2012년 정권창출 앞장서겠다"

■ 강운태 후보 당선 소감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강운태 의원은 10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장 서겠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뒤 "광주로부터 민주당이 똘똘 뭉쳐 새 바람을 일으키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2년 정권 창출 교두보를 광주에서 앞장서 마련하겠다"면서 "광주에서 새로운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두 후보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경쟁을 펼친 이용섭 의원,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그는 또 "두 후보가 발표한 공약도 실천할 것"이라며 "광주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반듯하고, 부러워하며, 여행가고픈,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시민배심원제에 대해 "걱정도 많았지만, 정치 1번지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기획하고 준비해 준 민주당 당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무·농림장관 지낸 '행정 달인' 관선 시장때 광주비엔날레 창설

■ 강운태는 누구

치열한 경선을 거쳐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강운태(62) 의원은 내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을 지낸 '행정의 달인'으로 통한다.

화순이 고향인 강 후보는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11회)에 합격, 내무부 세정과장과 지방기획과장, 행정과장, 대통령 행정비서관 등 영남정권 시절 호남출신으로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1994년부터 9개월 동안 40대의 나이로 관선 광주시장을 하면서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고 김치축제를 만드는 한편 삼성과 LG, 아남반도체를 첨단산업 단지에 유치해 첨단과 문화라는 두 기둥을 세우는데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광주시장 시절 ▲5.18 묘지 성역화 사업 착수 ▲광주시청 내에 5.18 민주화운동 사료실 설치 ▲5.18 유가족에 대한 의료보호제도 도입 등 광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강 후보는 정치에 입문해서는 나름대로 우여곡절도 겪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광주 남구에 출마,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지만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07년 대통령 후보 출마 뜻을 밝히기도 했으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기에 성공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정동채 "경선 원천무효" 재심청구 중앙당 逆여론조사 의혹 수사 의뢰

강운태 의원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공천장을 받기까지는 한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에서 패배한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예비후보가 11일 불법 ARS 여론조사를 이유로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중앙당도 불법 행위가 판정난 후보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강조하고 있어, 후보 확정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후보측 전갑길 경선준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오전 상대 후보 지지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목적으로 불법 ARS 여론조사가 집중됐다"며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재심을 요청했다. 그는 또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1~2위 간 격차가 0.45% 포인트의 박빙 승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법 ARS 여론조사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히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채 예비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경선은 불법선거로 얼룩져 원천무효"라며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자신의) 지지자 1천여명에게 불법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경선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경선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9일 불법 ARS여론조사와 관련,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선 당일인 10일 최재성 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수사 결과)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오늘 (경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두 후보 측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두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